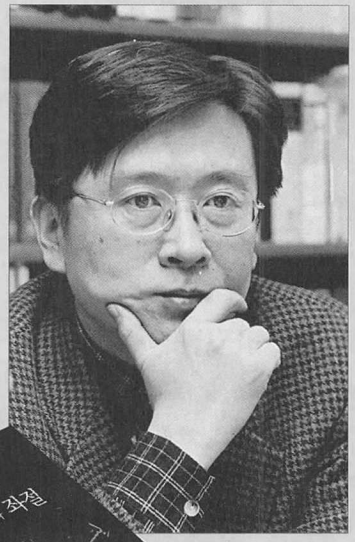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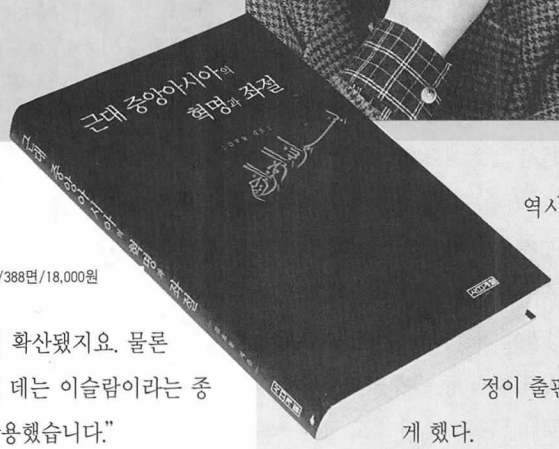
무슬림의 눈으로 본 중앙아시아 혁명사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펴낸 김호동 교수

역사학계의 변방에 속해 있던 중앙 아시아의 근대혁명사를 다룬 책이 나와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호동 교수가 13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출간한 이 책은 무슬림의 시각에서 혁명사를 재해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왕의 연구가 대부분 외부의 시선으로 무슬림 혁명사를 재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의 학술적 의미는 남다르다.



김호동 교수



사계절/A5신/388면/18,000원

과거 동서양 교류의 상징인 실크로드의 중추지역으로 세계사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중앙아시아. 그러나 근대 이후 중앙아시아는 마치 은퇴한 배우처럼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다. 옛 영화(榮華)는 사라지고 망각의 모래바람만이 불모의 땅을 뒤덮은 것이다. 김호동(46,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사계절)이 학계의 고평을 받는 까닭은 바로 세계사의 '변방'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의 근대사를 생생하게 복원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도 적지만, 있다고 해도 고대나 중세의 실크로드를 위주로 접근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들은 대체로 외부의 시선으로 중앙 아시아인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기존 연구성과를 접하면서 저는 일차적으로 현지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재구성해보고 싶었습니다."

김교수는 이 책을 통해 19세기 중앙아시아가 어떤 정치적 격변을 겪어나갔는지 상세히 보여준다. 특히 김교수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신강지역의 무슬림들이 1864년 혁명을 일으켜 독립국가를 이뤘던 13년 동안의 역사다.

"당시 서구의 압력으로 청의 지배체제가 동요하게 되면서 독립하겠다는 의지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혁명의지는 급속하게 확산됐지요. 물론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된 데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일체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교수는 무슬림의 혁명을 기층민중의 계급투쟁이나 민족해방운동으로 보는 기존 시각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무슬림 혁명운동에 계급투쟁이나 민족해방운동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점들로만 혁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만의 원인을 이교도의 지배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군주가 지배하는 독립국가를 추진한 것입니다."

혁명운동의 성공은 무슬림들에게 새로운 역사적 전기가 됐다. 몇백년 동안 몽고와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고 어엿한 독립국가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혁명은 무슬림에게 역사의식과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혁명 전후의 시기에 무슬림이 쓴 저작들에서 여실히 증명됩니다.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나 마찬가지지만, 혁명의 성공은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유산이 됐지요."

이 책은 13년 전 김교수가 하버드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논문의 수정판이다. 학위를 받자마자 주변에서 출판을 권유했지만 김교수는 사양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문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무슬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다는 학문적 열정이 출판을 뒤로 미루게 했다.

자신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김교수가 기울인 노력은 각별하다. 무슬림들이 남긴 자료를 읽기 위해 현지어를 공부했고, 필사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영국·프랑스·스웨덴·터키 등 유럽과 아시아의 각국을 돌아다녔다. 꼬박 10년에 걸쳐 기초작업을 마쳤고, 2년전부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근래 보기드문 장인정신이 이 책의 바탕힘이 됐다.

"우리는 너무 눈에 두드러지는 것만 연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오아시스·초원처럼 눈에 띄지 않는 대상에 대한 연구물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책이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교수는 올해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과 이란의 고전적 역사서인 《집사(集史)》를 번역출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아시아사와 몽고제국사에 대한 개설서를 쓸 생각이다. 작은 힘이지만, 일반인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에 불을 붙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 김정은 기자